

신학과 신앙

신학대학원장 흥 반 식

현대 신학교육에서 교회학과 선교학이 강조되고 있다. 본래 신학교 교과목에서 성경학과 이론신학등을 우선적으로 비중 높히 취급해 왔으나 근래에 있어서는 교회학 선교학등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종전에 실천신학이나 역사신학 분야 또는 조직신학에서 한 개체 과목으로 취급하던 교회학, 선교학등을 위해 단독적인 과를 설정하는가 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선교학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학교단위의 기관을 설립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자유주의적 신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에 대한 비상한 강조현상은 현대에 난립하는 자유주의 신학사상 즉 사회혁명과 개량을 위주하는 행동의 신학등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학우들이 출판하는 이 학보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제목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취급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비로소 드러낸 사상이 아니다. 유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함께 성도들 마음에 심기워져 왔고 파수되어온 신앙의 대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우들의 학술지가 이 제목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시기에 알맞는 증거라 하겠다. 본 고려신학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생활분야에서 직면한 난제들을 성경적 견지에서 분석 설명함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바른 개념을 갖게하며 사리를 바로 대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경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의 가르침을 인간의 사상에 맞추어서 속죄의 구원없는 이 세상 위주의 소위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와 메시아 구주를 중심하여 종국적으로 완성되어 영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증거하여 많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

실천신학의 반성과 전망

교수 김 병 원

신학을 일반적으로 다섯 분과로 나눈다. 즉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론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이다.

다른 분과는 진리를 발견하여 그 발견한 진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실천신학은 발견한 진리를 신자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실천실행케 하는데 치중하는 학문이다.

실천신학은 발견한 진리를 실천실행케 하는데 치중하므로 성경에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기독교 교리 문제를 어떻게 실천 하느냐라는 기독교 윤리문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서신등도 항상 교리 문제와 윤리문제 즉 신앙과 생활 양 방면으로 취급하였다. 그 한 예로 로마서를 보더라도 일장에서 십일장 까지는 교리문제를 취급하였고 십이장에서 십육장 까지는 생활문제를 취급하였다. 교리는 인체로 비유하면 뼈와 같고 윤리는 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균형잡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와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실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병행 해야한다.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최초

의 책은 Philipp Marheinecke가 1837년에 저술한 *Antwort der Praktischen Theologie*란 책에서이다. 그러나 목회학이란 말은 18세기 중엽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도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이란 설교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었다.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학이란 학문이 분리되어 있었다. 목회(Pastoral)라는 형용사는 설교 이외의 교회내의 모든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 같다.

목회신학이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 간주가되나 어떤때는 실천신학에서 다루어지는 학문들이 목회신학에 다 포함되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쉐드(Shedd) 교수는 말하기를 목회신학을 "성직자의 교구 생활"에 관한 것이고 "개인의 영혼에 관여하는 것"이라 보았다. 쉐드에게 있어서 목회신학을 목사의 인격 연구 기도에다 심방 교리문답을 포함하는 것이라 보았고 실천학은 여기에다 설교학과 의식 문학을 보탠것이라 보았다. 쉐드 교수는 또 말하기를 신학이 철학이나 문헌학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학문이라 보고 실천 신학은 이 이론적인 것을 곱곱하게 응용하는 것이라 보았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목회신학의 역사가 곧 실천신학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역사는 구약시대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적당한 인물을 택하사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초기 홍수시대, 노아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 일하게 하였고 또한 제사장(priest)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신33 : 8-11에 보면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상담할때 우뚝과 돌뭍을 사용하였다. 사사시대 이후는 선지학교를 세워 경험있고 권위있는 선지자가 선지 지원자를 지도 훈련시켜 양성 하였다. 열왕기서에 의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교수를 받았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 백성들을 힘있게 지도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위반 되었을때는 주저없이 책망 하였고 순종하였을 때는 축복도 한 것이다. 포로시대를 전후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지도하

였고 또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도 나와 실천신학의 근거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 당시의 실천신학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70 문도와 12제자를 택하여 훈련 하시고 교육 시키셨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실천신학이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할것인가에 대한 지시의 기록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70인이나 12제자들에게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모든 전도자에게 추신 교훈으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전도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하고(눅10 : 17) 예수님은 훈계도 하시고(눅10 : 18-20), 막10 : 13)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하기도 하셨다(막6 : 31).

예수님의 실천신학 방법은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는 심방과 여러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와 병들고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봉사로 요약 할 수가 있다(막9 : 35).

예수님의 실천신학 원리는 사랑의 힘으로 하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사랑의 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었다. 그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모든 영혼을 일대일 사랑으로 취급하셨다. 그는 죄는 죄대로 정죄 하셨지만 죄인을 구원하려고 노력 하셨다.

사도들의 실천 신학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보면 소망중 경성을 재촉하였고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그 앞에 설것을 권면하였다. 그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즐거움과 자원하므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았다. 베드로의 자격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여된 사명이다.

바라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바를 택하여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그는 안디옥 교회를 충실히 봉사하므로 세계 교회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로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착한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자였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구원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였고(고전15 : 10)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우신 선물(엡2 : 8)이라 하였으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하

기 위하여 목숨까지 귀한것으로 여기지 않았다(행20:24). 그는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지 않았고 양무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양들임을 깊이 깨닫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바울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궁핍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그는 신자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종교개혁시대의 실천신학은 루터에서 시작이 된다. 루터는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을 힘있게 선포 하라고 주장하였으며 죄의 일반적 고백을 제도화 했고 만민 제사직 사상을 고취했다. 그는 인간의 영혼치료를 위하여 힘썼다.

칼빈은 영혼의 병치료가 실천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성결과 진리 보수를 교회적 견책과 권징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신자들의 가정을 심방하였고 다른 교회와 서신 연락도 하였고 교회의 친교도 도모 하였으며 교회정치 제도를 확립하였을 뿐아니라 교회조직의 원리도 확립하였다.

경건주의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영혼 문제에 관심을 표시 하였으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례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의 구혼 문제보다는 교리와 생활의 순결성 문제를 더욱 강조하였다.

근세교회의 실천학에 있어서 쾅글리(Zwingli)는 거짓 목회와 참 목회를 분간해 놓으려고 힘썼고 부서(Bucer)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최초의 목회신학형성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합스(Harms)는 실천신학이 신학의 한 부분으로 신학계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18세기 중엽에 그가 내놓은 저서때 부터이다. 박스터(Baxter)는 17세기에 “개혁교의 목사”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목사의 활동분야를 설명하였다. 슬라이막허(Schleiermacher)는 교회를 보존하고 완전케하는 방법으로 목회신학을 이해하였고 화란 학자인 오스터지(Oosterzee)는 실천신학이 목사나 교회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연구하는 일부분이라고 믿었다. 쉐드(Shedd)는 실천신학은 심방 교리 문답 기도 목사의 지성적 활동 설교학 의식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였다. 베델(Bedell)은 실천신학은 자기가 처한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을 묘하게 감지하는 힘과 기본적인 이론을 찾아낸 학문적인 배경, 이들

을 조화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글라덴(Gladden)은 실천신학이란 목사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계속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과 목회하는 일 혹은 남녀노소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것이라 하였다. 게벨팅(Geberding)은 실천을 연구하고 일하는 교회를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응용 기독교(applied christianity)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20세기의 실천신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큐러(Cuyler)는 “목사가 되는길”(How to be a pastor)라는 책을 저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목회자의 자질 품성 소명의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그는 목회활동을 가리켜서 자기의 열정이라 말하면서 목사들에게 교인들과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말라고 타이르고 있다. 제퍼슨(Jefferson)은 목양자인 목사(The ministry shepherd)라는 책을 발간 목회활동에 전심할 것을 호소한 내용인데 목사의 자격, 목사가 위임받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회하는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목사가 하는 일은 ① 잘 살피는 일 ② 문지기 하는 일 ③ 앞장서 다니는 일 ④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 ⑤ 남을 구제하는 일 ⑥ 먹여주는 일 ⑦ 사랑해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왓슨(Watson)이 저작한 영혼의 병의 치료(The Care of Souls)라는 책은 20세기 초에 그 영향력이 아주 컸던 책으로 내용은 목회자의 사명의식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보이슨(Boisen)은 목사들에게 임상훈련을 시키라고 제안했고 종교경험과 정신착란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이론을 제창하였으며 비넷(Vinet)은 실천신학은 목회신학을 한 분과로 삼고있을 따름인데 이것들은 다 순수한 학문적 신학에서 얻어진 지식을 유용하게 활동하는데 끝난다고 보았다. 그는 스위스의 위대한 목사이 교사인 “나는 내 양을 알고 내양은 나를 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자만이 참신한 목자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옥슈덴(Oxeuden)은 18세기에 목사의 성품이라는 제목에서 영에 대한 사랑 개인 생활의 신성성 자중성 명랑하고 희망에 넘치는 기질 슬기 분별력 친절 자기부정 일관성 그러한 목적을 향한 전진 이런 성품을 소유한 자가 목사라고 했다.

실천신학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목회학이다.

진도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해주는 학문이다.

기독교 상담학은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담자간의 대화인데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조화되어 살도록 교육시키는 학문이다.

그외에도 교회 행정학 교회 정치학 기독교 예배학 기독교 가정학 설교학 교회 성장학 그리고 선교학이다.

본교에서는 상술한 과목들을 거의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기독교 교육과 교수들 하도레 선교사 신내리 선교사 몇분의 외부 강사 그리고 필자가 여러과목들을 교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배학과 목회학을 분리 하였으나 지난 학기부터 합쳐서 3학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주일학교 행정도 교회 행정학에서 완전히 분리시켰으면 하는것이 필자의 구상이다 그 이유는 주교 행정이 아주 중요하며 또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현금에 와서는 신학도들도 실천신학 연구열이 높아가고 있으며 목회자들에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더 많은 실천신학자들이 배출 되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교수논단 □

舊約의 本質과 新約과의 관계

교수 박 종 칠

차례

- I. 舊約의 本質
- II. 舊約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 III. 舊約과 新約과의 관계